

아비약트 밥다다가 이중의 외국인들을 만남.

오늘 밥다다는 수백만 곱절로 복 있는 너희 자녀들 모두를 보며 기쁘다. 너희들은 각자 세상이라는 진열장 안에 놓여 있는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한 보석이다. 너희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제 스스로의 가치를 안다. 그러나 밥다다는 끊임없이 너희들 각자의 완전한 단계를 본다. 그는 각자에게서 시작, 중간, 마지막의 세 단계 모두, 즉 현재의 천사의 모습, 미래 신인의 모습, 그리고 중간 시대의 숭배받을 가치 있는 모습의 세 단계를 보면서 각 보석의 가치를 안다. 보석 각각은 몇 백만 중에서 고른 한 줌, 그리고 그 한 줌에서 뽑은 극소수 중의 하나다. 너희는 너희들 자신을 이렇게 여기느냐? 세상의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한 쪽에 두고 너희 자신을 다른 쪽에 놓고서, 현재와 미래 너희들 각자의 모습이 얼마나 고귀한지 보아라! 너희는 한결같이 이 정도로 도취감을 느끼느냐? 오늘날까지도 신봉자들은 숭배받을 가치 있는 너희들의 신인의 형상을 여전히 숭배하고 있다. 그들은 살아 있는 신인인 너희들을 살아 있지 않은 상들 안에서 불러낸다. 그들은 소리쳐 부른다, “오셔서 우리를 평화롭지 못함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라고. 너희를 부르고 있는 미래 너희의 신봉자들과 너희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오늘날 각국 정부들의 격변을 보면서 모든 이가 세계 황제들, 황후들을 기억하고, 낙원에서의 라마(신)의 왕국을 기억하면서 그들 모두가 그 왕국을 다시 원한다. 아버지와 더불어 너희들 모두에게도 역시 황금시대 라마(신)의 왕국에 대한 권리가 있다. 너희의 백성들은 왕국에 대한 권리를 가진 너희들 모두를 불러내면서 그 왕국을 다시 가져다달라고 너희에게 간청하고 있다. 그들의 이 소리가 고귀한 영혼인 너희들 모두에게 도달하지 않느냐? 모든 이가 소리쳐 부르고 있는데, 일부는 입으로 울부짖고, 나머지들은 평화롭지 못함으로 인해 마음속으로 울부짖는다. 일부는 세금 때문에, 다른 일부는 가족의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이들은 지위가 불안해서 울부짖는다. 왕국에 대한 권리를 가진 위대한 이들 모두가 서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울부짖는다. 아이들은 학업의 부담에 눌러 울고 있다. 젊었거나 늙었거나 모든 이가 다 울부짖고 있다. 모든 이가 울부짖고 있는 소리가 너희의 귀에 도달하느냐? 그럴 때 너희들은 아버지와 더불어 모두 다 평화의 탐들이다. 모든 이의 눈길이 평화의 탐에 이끌린다. 괴로움의 울부짖음 후에 언제 승리의 소리가 들릴지 모든 이가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평화의 탐인 너희들 모두 말해봐라! 너희는 언제 기쁜 승리의 소리가 들리게 하겠느냐?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이 도구가 되도록 너희 모두를 비물질세계에 두었다. 그러니 육신을 가진 천사들아, 언제 천사인 너희의 모습을 통해서 세계의 슬픔을 없애고 행복의 나라를 창조하려느냐? 너희는 이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외국인들은 마지막에 왔고 빨리 가고 있다. 너희는 빠른 속도로 언제 모든 이에게 구원을 허락하려느냐? 항시 준비되어 있느냐? 밥다다는 자녀인 너희들 하나하나를 가리키고 있다. 샹티들은 훨씬 더 많이 숭배된다. 줄이 두 개 있다. 하나는 하늘만 앞에 늘어서 있는 판다바들의 줄이고, 다른 하나는 바이슈나브 여신 앞에 늘어서 있는 샹티들의 줄이다. 양쪽 모두 앞에 긴 줄이 있다. 나날이 두 줄 모두 더 길어진다. 그러니 너희들은 신봉자들에게 해방과 구원을 허락함으로써 그들의 신봉에 대한 결실을 줄 것 아니냐? 끊임없이 너희 자신을 해방과 구원의 공여자 마스터라 여기며 모든 신봉자에게 해방과 구원이라는 프라사드 (신성한 음식의 공양)를 나눠줘라. 이 프라사드를 나눠주는 방법을 아느냐? 이제는 톨리를 나눠주는 방법에 너희가 충분히 숙달되었으니 이제 이 프라사드를 나눠줘라.

오늘 바바는 특별히 외국인들을 만나려고 왔다. 오늘 바바가 암릿 벨라에 세계에서 어떤 장면을 보았는지 너희에게 얘기해 주겠다. 하나는 부르짖는 (칠라나) 자들의 장면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든 걸 있는 대로 해나가는 (찰라나) 자들의 장면이었다. 한 그룹은 울부짖고 있었고, 다른 그룹은 한 번 밀침으로써 모든 일이 일어나게 만들고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어딘가에 끼어서 움직일 수 없으면 사람들이 그를 밀어준다. 뭔가 물건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밑에 바퀴를 끼워서 움직이게 만든다. 오늘날의 언어로 옮기면, 어떤 과제에 바퀴를 달아주거나 다른 어떤 시설을 주지 않으면 그 과제는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바퀴를 달아주는 것이 한창 유행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매사에 제 자신을 채찍질하거나 또는 바퀴를 달아줘야만 겨우 해나갈 수 있다. 이처럼 오늘의 소식은 세상의 모든 이가 울부짖고

있거나, 아니면 하는 일과 생활의 모든 것을 겨우 지탱해 나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정부조차 그저 명목상으로만 정부라고 불린다. 고통으로 울부짖는 것과 있는 그대로 모든 걸 견뎌나가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상태다. 일부는 괴로워하며 부르짖고 나머지는 모든 걸 견뎌나가야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의 소식을 들었느냐?

외국인들은 한 가지 특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다다는 머나먼 데서 그의 자녀들을 찾아내어 이리로 데려왔다. 너희가 그런 아버지의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가 되리라는 것을 꿈이라도 꿰본 적이 있었느냐? 아버지는 자녀인 너희 모두를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골라서 가족의 꽃다발로 만들었다. 그러니 여러 다양한 장소에서 온 너희들 모두 브라민 가족의 꽃다발을 이루는 다양한 꽃들이다.

외국인들의 특별함.

드라마에 따라서 이중의 외국인들은 특별한 승강기를 받았다. 이 승강기를 토대로 마지막에 온 너희들 모두 아주 빨리 가고 있다. 그 승강기의 선물이 무엇이나? 외국인인 너희들에게는 이 특별함이 있다. 즉 너희는 특별한 승강기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너희는 안락함의 편의시설들을 모두 경험하는 데 지쳤기 때문이고, 반면에 바라트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방금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만족을 느낄 때는 어떤 신체적인 편안함이 있거나 물건들이 앞에 놓여 있어도 그 어떤 것에도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인 행복의 것들을 이미 다 경험했으므로 그는 가득해졌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일시적인 행복을 주는 모든 것으로 배가 부른 것과도 같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모든 것에서 아주 쉽게 비껴 설 수 있다. 그들은 또 자기들이 필요로 했던 지원을 찾았으므로 아버지 한 분에게만 속할 뿐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다. 너희들은 틀림없이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이미 다 경험하고 가득해진 후에야 그 모든 걸 버렸다. 외국인들은 그러한 승강기를 가져서 여기에 오자마자 지각으로 그 모든 것에서 비껴 설 수 있다. 바라트의 분위기는 뭔가 지원을 찾는 것이 되었고, 그래서 뭔가를 버리는 것이 바라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너희 외국인들은 열의를 가지고 모든 걸 즉각 놓아버릴 수 있다. 내려놓자마자 너희는 자유로워진다. 둘째로 너희 외국인들은 생각하는 대로 뭐든 행하는 산스카르들을 갖고 있다. 너희는 “개의치 않는” 태도를 갖고, 틀림없이 제 생각대로 한다. 너희는 이 사람이 뭐라 하고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할 것에 관해 걱정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이미 여론과 사회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했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바라트 사람들보다 노력에서 빨리 갈 수 있다. 바라트 사람들은 너희들에 비해서 사람들과 사회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한다. 이중의 외국인들은 이미 이것에서 벗어나 자유롭다. 그들의 모든 관계들 중 절반은 이미 끊어졌고 그래서 그들이 비록 마지막에 왔지만 빨리 갈 수 있다. 이해하느냐? 드라마에 따라서 이것은 너희 외국인들의 특별함이다. 이런 것들은 무지의 길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산스카르들은 드라마에서 너희들 자신 안에 변화를 가져오는 쉬운 길이 되었다. 바로 이렇게 해서 그것이 너희 외국인들에게는 쉬웠다. 너희 외국인들은 애착에서 너희들 자신을 해방시키는 데 지혜롭다. 외국에서 거주하는 인도인들도 역시 그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지만 너희 외국인들은 지혜로워져서 높이뛰기를 잘 한다. 너희 외국인들은 너희의 특별함을 이해하느냐?

밥다다가 호주에서 온 그룹을 만남.

호주에서 온 자들은 봉사에서 무척 크게 발전했다. 너희들은 전에 아버지와 헤어졌던 영혼들을 그에게 데려오는 영적인 봉사자들이다. 보석인 너희들 각자 아버지에게 가까이 오고 또 남들도 그에게 가까이 데려온다. 밥다다는 그러한 영적인 봉사자들을 보며 기쁘다. 새로운 너희들도 역시 오래된 듯 친숙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너희는 매 사이클마다 권리를 차지해왔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온 자들의 특별함은 너희가 특별한 협조 없이도, 너희의 관계를 토대로, 아버지와의 연결만으로 봉사를 수행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너희들 자신을 한결같이 아버지와 가까운 영혼으로 경험하느냐? (샹티들에게) 샹티들의 깃발이 높이 휘날리고 있다. 판다바들은 노력하고 깃발은 샹티들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좋은데 왜냐하면 샹티들은 안내자들이고 판다바들은 경호원들이기 때문이다. 경호원들은 뒤에 머물러 있고, 자기들의 안내자들을 앞세운다. 그러니 너희 샹티들은 모든 이에게 길을 보여주는 안내자들이냐? 너희는 샹티들이냐, 쿠마리들이냐? 샹티인 너희들은 한결같이 마야의 정복자라는 특기를 갖고 있다. 너희는, 너희를 공격하는 마야의 등에 올라탄 자들이다. 너희들은 이와 같다, 그렇지?

밥다다는 10년이나 12년 전쯤에 처음 외국인들을 불러냈다. 너희들은 참으로 다정한 영혼들이다. 너희들 모두 아버지에게서 성취한 평화, 행복, 희열의 그네를 끊임없이 타느냐? 지금 변함없이 그 그네들을 타는 자들은 미래 육신의 형태로도, 미래에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아버지와 함께 그네를 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모두 슈리 크리슈나와 함께 그네를 탈 것 아니냐? 오직 너희가 아버지와 대등해져야만 그때 너희가 그와 함께 그네를 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멀리서 지켜만 보는 자들이 될 것이다. 지금 한결같이 그와 함께 동반하는 자들은 거기서도 아버지와 함께 그네를 탈 것이다. 너희들 각자 천국으로 가는 표를 예약해 두었느냐? 어떤 등급의 표를 예약했느냐? 누가 냉방이 되어 있는 칸의 표를 얻을 수 있느냐? 여기서 어떤 상태에서든 안전하게 머무는 자들이다. 어떤 상황이 오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도 너희는 1초에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너희가 에어컨이 되어 있는 칸의 표를 예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격을 받아야 한다. 저 티켓을 사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이 티켓 역시 구하려면 변함없이 승리해야 한다는 돈이 있어야 한다. 이리로 오기 위해서 너희는 돈을 저축하려고 노력을 무척 많이 했다. 그러나 이 표를 위해 돈을 모으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쉽다. 한결같이 아버지와 동반하며 머무는 자들은 매 1초1초마다 엄청난 수입을 모을 수 있다. 그러니 이 짧은 기간 동안 너희는 수입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앗차, 너희는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웠느냐? 삭티들과 판다바들의 집회는 좋다. 너희들끼리 서로 모두 장애가 없이 자유로우냐?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협조하느냐? 너희들 가운데 갈등은 없지? 자, 이제는 더 많은 센터들을 장애 없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상을 받을 것이다. 센터를 더 만들고 그곳들도 역시 장애가 없게 해라. (밥다다가 호주의 저희들에게 오실까요?) 밥다다는 매일 그리로 여행한다. 자녀인 너희들이 바바를 기억할 때 바바가 그것에 대해 답례로 뭔가를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매일 아침 암릿 벨라에 밥다다는 각 자녀 하나하나를 돌보려고 세계일주 여행을 한다. 너희는 바바와 진심을 나누는 대화를 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와 대화를 하는 것은 오직 바바가 그리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는 바바에게 날마다 얘기하느냐, 가끔 어떤 날에만 하느냐? 그냥 앉아 있는 것과 만남을 축하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 너희가 앉더라도 이제는 강력한 단계에서 앉아 있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변함없이 가까움을 경험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여기에 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만날 것이다. “바바”라고 말하자마자 너희는 그와 함께 있음을 경험한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저 “바바”라고 해라, 그러면 너희가 1초 이내에 그의 동반을 경험할 것이다. “바바”라는 이 말은 마법의 단어다. 사람들이 몸에 마법의 마스코트를 지니고 다니듯이 항상 이 “바바”라는 마법의 말을 달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언제 무슨 과제에서든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을 것이다. 만일 뭔가 장애가 생기면 그때는 그저 “바바”만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것이다. 끊임없이 너희의 의식 속에 “바바”라는 위대한 만트라를 간직해라, 그러면 너희가 한결같이 그의 보호의 가리개 아래 보호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모리셔스.

너희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보물들을 갖고서 끊임없이 노느냐?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너희 사랑스러운 자녀들은 끊임없이 지식의 보석들을 갖고 논다. 너희들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지식의 보석들을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받았다. 한없는 이 보물들을 가지고 너희는 변함없이 노느냐? 이 보석들을 가지고 놀면서 또 남들도 이 보석들로 채워주느라 한결같이 바쁜 상태에 머무느냐? 이것이 너희들의 의무 아니냐? 너희는 그저 명목상으로만 가정을 꾸린다. 브라민 삶에서 너희들의 의무는 이 지식을 듣고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 본래의 의무다. (저희들은 굴레에 묶여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집에서 굴레의 삶을 사는 자들은 마음을 자유롭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매 순간 너희의 깊은 관심은, 언제 너희가 장애에서 자유로워져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너희의 몸은 거기 있을지라도 너희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 몸 때문에 너희가 의존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 너희 몸을 가둬두려고 아무리 자물쇠를 여러 개 채워놓아도 너희 마음까지 잠가둘 수는 없다. 너희가 마야의 정복자가 되면 너희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굴레에 묶인 자들은 그들의 태도와 순수한 생각을 세계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쓸 수 있다. 굴레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유형의 봉사를 할 엄청난 기회가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봉사받기를 원하는데, 모든 이가 마음의 평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평화의 파동을 퍼뜨리는 데 너희 마음을 사용해라. 평화의 대양 아버지를 기억하며 너희 마음을 안정시켜라. 이런 식으로 너희 마음을 통해 봉사해라, 그러면 평화의

광선이 자동적으로 모든 곳에 퍼져나갈 것이다. 이처럼 너희들은 평화를 기부하는 데 기부자들이 아니냐?

너희가 아버지를 동반할 때는 아무도 너희에게 무슨 일도 할 수 없다. 누군가 소음을 낼 수는 있겠지만 (격변) 그것은 디과왈리 (빛의 축제) 때 모기떼가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곧 잠잠해질 것이다. 대양의 자녀인 너희들 역시 대양들이다. 너희는 온 세계를 ‘아리안’ (교화된 인간)들로 만들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럴 경우 누구라도 너희에게 뭘 할 수 있겠느냐? 그 시냇물들은 대양으로 흘러 들어가 합쳐져서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기억하든, 아버지는 그 수백만 곱절로 너희를 기억한다. 이런 이유로 너희들의 기억에 대해서 답례하기 위해 바바는 매일 여행한다. 일부 자녀들은 잠을 자고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돌아다니며 자녀들을 돌보는 그의 의무를 완수한다. 일부는 이를 알아차릴 수 있는 반면 일부는 그러지 못한다. 그것은 모두 너희 자녀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그때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음으로써 너희들은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너희는 하루 내내 자양분을 받을 것이다.

시험지가 올 때는 너희를 더 경험 있게 만들려고 오는 것이다. 이 말은 그래야만 너희가 모든 장애의 정복자라는 학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지를 받으면 그것이 너희를 학급에서 앞쪽 등수로 옮겨주려고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밥다다는 끊임없이 그의 자녀들을 보호한다. 그러므로 한결같이 그 보호의 가리개 아래 머물러 있어라.

축 복: 너희 자신을 완전히 버림으로써 “나”에 대한 권위 의식을 끝내는, 대등한 동반자가 되어라. 너희들은 “저는 당신과 함께 머물다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서 당신과 함께 왕국을 다스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오직 너희가 동반자와 같아져야만 그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너희가 헌신하면 대등함이 생길 것이다. 너희 자신을 바치고 났을 때 자아와 남들의 권위가 끝난다. 너희가 그 권위를 여전히 갖고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아직 완전히 헌신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대등해질 수가 없다. 그러니 함께 머물며 함께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빨리 대등해져라.

슬로건: 너희의 시간, 호흡, 생각을 가치 있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성공의 토대다.

더블 라이트 단계의 경험.

10) 이중의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더블 라이트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자신을 위탁 관리 인이라 여기며 앞으로 나아가라. 그것을 너희의 가정이나 가족이라고 여길 때는 너희가 그것을 짐 무게로 경험한다. 그것들이 너희의 것이 아닌데, 무슨 무게가 있느냐? 모든 무게를 아버지에게 넘겨주고 천사의 (반짝이는) 옷을 입고 너희 나라로 가라.

*** 음 산티 O M S H A N T I ***